초·중등학교 유희시설 활용방안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ays to utilize inactive faciliti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 Focusing on abolition schools with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districts -

이 재 림*

Lee, Jae-Rim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ways of utilizing abolition schools and the problems possibly caused by amalgamating small schools in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collaborate with the communit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s where schools might be abolished, which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Following results are integrated by the theoretical framework, social and educational necessities,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bout the utilization of abolition schools.

First, alternative schools, characterized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 can be established as the result of abolition schools that are caused by lack of people in the city.

Second, since it is easy for people to access to the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near cities, abolition schools in these areas can be used as experience facilities or training pla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Third, in case of the abolition candidate schools in the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in the districts, students and village people can use the schools for education and social purposes.

Fourth, when abolition schools are independently located from the agricult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they can be used as self-service places or local peoples' places for business.

키워드 : 소규모학교, 통폐합, 폐교, 유희교실, 지역사회

Keywords : small schools, abolition and amalgamation, abolition school, district society

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저출산 경향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학령아동의 감소와 사회 복지 확대 등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재구성을 요구

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은 초·중등학교의 입학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 대도시의 과대학교를 완화한 반면 농·산촌 등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과소규모 학교화 하는 역할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토의 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해 혁신도시 및 신도시의 설립은 새로운 주거지에 의해 필요한 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복지 여건이 부족한 구도심의 경우 신도시로의 이동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지역 복지 여건이 부족한 농·산촌의 경우 유입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공학박사
본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인구의 감소와 기존 가구의 도시로의 이주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노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농·산촌의 학령아동 감소는 필연적으로 학교 규모의 과소규모화로 이어지고 적정규모¹⁾ 미달에 따른 학교간 통폐합에 따라 1982년 이후 2009년까지 5,241교²⁾의 통폐합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또한 저출산 영향에 의해 지속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농·산촌의 소규모학교의 운영은 비전공교사 수업,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고 교원의 업무부담도 가중 된다³⁾. 또한 다양한 교육시설환경의 부재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며 소인수 학급 규모는 학생의 사회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면 농·산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지역사회에서 폐교의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상실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탈 도농 현상의 가속화로 이어져 농·산촌의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폐교 활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 위주의 임대 및 극소수의 기관 설립 만 제시되어 지역사회와 관계없는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산촌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기존 폐교 활용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공공재산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폐교 대상 학교의 지역적 입지 특성⁴⁾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활용할 수 있는 폐교활용방안을 도출함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내용

1) “적정규모”라 함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 사회성 및 교육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학교당 학생수 규모를 의미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 2009. pp.1~4

3) 국민권익위원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고충해결 및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0, p.2

4) 지역적 입지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폐교 대상 학교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과 주민의 도보에 의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농·산촌 지역사회 중심지역, 농·산촌 지역사회 외곽 독립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였다.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유휴시설과 폐교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주는 재정적 형평성과 관리의 한계를 벗어나 점점 소외되고 낙후되어가는 도시의 소외지역과 농·산촌을 지역사회의 복원과 함께 교육인프라의 확대로 얻어 질 수 있는 거주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복원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접근을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이슈 및 다양한 학교 형태의 도입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본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 활용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활용방안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한 사회 이슈 등에서 유휴시설 활용이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농·산촌 지역의 폐교 활용 현황과 지역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유휴시설 발생은 학생수 감소나 통폐합을 전제로 하며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개의 폐교화라는 인식에서 발생된다. 반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폐교 대상 과소규모학교의 폐교보다는 저학년 유지방안을 도출하여 농·산촌의 특성에 맞는 행정적 통폐합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1-3. 연구 방법

통폐합 후 발생하는 폐교의 활용 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폐교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와 사회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도시지역과 농·산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폐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특성과의 관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과정에서 지역사회 특

성을 조사하고 이의 특성에 적합한 폐교 대상 학교의 활용방안을 도출을 위해 지역 문화·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폐교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I-4. 연구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 조사 대상의 도시 지역 범위로는 대구광역시와 구미시의 근교에 위치한 폐교 활용 실태를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농촌 지역 범위로는 과소규모 학교 분포도가 높은 경상북도 의성군 내 폐교 활용 사업장으로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중심지역과 지역사회 외곽 독립지역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한정 하였다.

둘째, 연구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폐교의 활용 측면을 파악하고, 통폐합 과정에서 폐교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의 문화·복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 대상 범위가 도시의 일부 및 농촌 면 지역으로 한정되어 여러 유형의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 되지 않아 통폐합 후 폐교의 일반적인 활용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폐교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저출산에 의한 학령아동수의 감소는 초등학교의 경우 2030년 경 2007년 기준 학령아동수의 평균 58%⁵⁾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농·산촌 학교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속적인 학령아동의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재통폐합 대상이 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폐합 과정에서 폐교 방생의 억제와 지역사회의 복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학교 유지가 필요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II-1. 폐교 및 여유교실 발생 배경과 향후 전망

폐교 발생 배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구도심의 경

우 도심 공동화 현상에 의하여 학령아동을 가진 가구가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수의 축소와 자연감소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산촌의 경우 젊은 가구의 이농 현상 및 저출산에 의한 학령 아동 급감에 따른 학급수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는 학급 수 감소로 이어지고, 줄어든 학급 수만큼 유휴교실⁶⁾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점점 학교 규모의 축소는 학교 운영에 효율성과 형평성에 의해 적정규모 미달이라는 명제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폐교 발생이 주 과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06년 정부는 농산어촌 지역의 무분별한 탈이농을 막기 위해 1교 1면 존치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 당 6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의 경우 적극적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존치된 학교는 물론 통폐합에 의해 운영되던 소규모학교마저 지속되는 학령아동의 감소로 다시 재 통폐합이라는 악순환이 도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4,972개교로 전체 학교수의 43.1%를 차지⁷⁾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II-2. 통폐합에 따른 폐교시설의 활용방안

1) 국내 폐교 활용방안

국내 폐교 발생은 통폐합 과정에서 대부분의 폐교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부되고 있고,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폐교재산의 활용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농·산촌 활성화 측면에서 교육목적의 재활용,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및 복지시설로의 개선, 지역의 소득증대 사업 및 농촌과 도시를 연계시키는 장소로서의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관련 연구 자료에 의해 제시된 활용방안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활용방안으로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

6) “유휴교실”은 여유교실, 잉여교실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여유교실로 불리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유휴교실로 호칭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유휴교실로 호칭하도록 한다.

7) 교육기술과학부,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 2009. p.9

5)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 2009. p.2

등 폐교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책 박물관, 또는 인근 학교의 학생 실습지로 활용하거나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실험·실습·전통문화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의 활용방안으로는 복지시설이 부족한 소규모지역의 특성을 고려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며 마을 농사용 농기구·농기계 보관 장소로 활용하거나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안으로 도시민의 주말 농장 및 영농체험사업장으로 활용하거나 문화행사장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행사장으로는 향토관이나 지역문화기관을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활용성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현황으로는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입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농·산촌 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⁸⁾에 대한 분석결과⁸⁾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1. 폐교재산을 다른 시설로 사용시 용도 방향

	교육 시설	지역 주민 복지 시설	지자체 와의 연계 시설	지역 문화 공간	주민 소득 증대	기타	계 (%)
전체	137 (51.5)	61 (22.9)	36 (13.6)	23 (8.6)	4 (1.5)	5 (1.9)	266 (100)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인 의견은 교육시설로 재활용 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근린공공시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해당지역 입지와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폐교의 활용은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시키고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시키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채충기, 이재립,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학회. 6권, 2호, 2008, p.52

2) 일본의 활용 경향

일본에서 발생한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논의는 1993년 문부성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면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향성은 학교 전용의 이용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패턴으로 모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활용방안에서 보이는 두드러지는 경향은 고령자와 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탁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 지원 개념을 포함하여 지역방재시설 등 사회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또한 지역적으로 도심의 경우처럼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도쿄지역)의 경우 일반학교의 교실이 많이 남는 상황에서 유휴교실의 일부를 활용 교육의 보완의 일환에 의한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사례¹⁰⁾도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경험의 앞 선 일본의 경우 교육적 활용을 넘어서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설로의 전환 등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3. 도·농 지역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언론 분석

농촌의 인구 감소와 도시인 삶의 메마름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사례로 언론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폐교 활용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교육농장(교육농장을 농촌과 도시, 농업과 교육의 상생적 만남의 장으로 활용)

국정넷포터 전성균은 농촌을 활용한 교육농장의 필요성¹¹⁾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서 농촌을 찾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살아 있는 배움터를 제공해야한다.
- 다양한 식물의 재배과정과 자연의 순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 전통문화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의 이야기 및 구체

9) 김승근 외, 일본의 초등학교 여유허교실의 전용과 한국의 여유허교실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7권, 2호, 2006, p.25

10) 정진주, 일본 도쿄 타카오야마학원 사례를 통한 유휴교실의 도심 대안학교로의 활용 가능성, 한국교육시설학회, 15권, 2호, 2008, p.77

11) 전성균, 살아있는 배움터 농촌교육장,국정브리핑, 인터넷자료, 2007.5.7

적인 경험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 교육농장을 농촌과 도시, 농업과 교육의 상생적 만남의 장 및 인성과 감성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농촌 교육농장에서 이수된 교육프로그램은 학교 성적에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

- 농촌 교육농장에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 노인문제 등 사회제반 문제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농장은 1사1촌 운동처럼 기업, 사회와 같이 의논하고 가꾸어 가야 한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센터의 활용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¹²⁾에 따르면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정의 거주를 위한 보호기관’은 2년으로 거주가 제한되어 있어, 입소 수용가능 정원을 초과하는 이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이들을 위한 적응 시설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시설은 피해발생 시 보호치료단계에 머물고 있어 이주여성 관리는 지속적인 보호와 취업, 자립기반 지원체계가 없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공공시설 중 활용이 가능한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3) 도심의 폐교를 활용한 임대 주택 활용

전북발전연구원은 도심지 내 폐교를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소득 1~2분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계층의 임시거처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사례로 일본의 도쿠시마현에서는 1999년에 폐교된 학교를 이듬해 24억원을 들여 집합주택으로 완성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4) 노인 요양관련시설로의 활용

통계청의 2010년도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는 1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거노인은 매년 약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³⁾ 독거노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당수의 독거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건강상태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노인자살 실태 분석과 예방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자살자 수는 1989년 788명에서 2008년 4029명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급격히 노인 자살이 늘면서 20년간 5배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머니투데이(2009.05.12)에 의하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치매노인 보호시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1~3등급 요양환자 주간보호서비스의 운영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2009년 7월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하여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사항을 해결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경엔 노인 입소생활시설 이용수요가 10,600명, 가정에서 매일 1일 단위로 방문해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 수요가 5,1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수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작은 일자리를 요하는 노인의 경우 농산어촌의 폐교를 활용하여 이들의 공유공간을 제공 하는 역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아동 관련시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육대상은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농산어촌의 소규모 마을의 경우 평시 농사 등에 의해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할 여력이 없는 복지 소외지역임을 고려하여 유희시설이나 폐교 발생 시에는 이를 일부 할애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지역사회 스마트워크로 병행 활용

2010년 7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12)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해야>, 인터넷자료, 2010.5.28

1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08호, 2010, p.1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보고에서 2015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30%,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¹⁴⁾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도시 근무자에 대한 배려도 가능한 환경으로 지역사회 내 학교 시설 일부를 병행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

II-4.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의 지역적 특성

폐교 발생은 소규모학교 간 통폐합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발생하는 폐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지역입지와 관계없는 수련원 등 교육청 단위 활용방안 등이 모색되어 그 한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통폐합에 따른 폐교 활용방안은 폐교 대상 학교의 지역 입지의 특성에 따라 활용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활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근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도시지역은 인구 감소에 의한 구도심의 공동화 지역과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 지역의 과소규모 학교 발생으로 통폐합에 의한 폐교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도시 외곽지역의 저밀도와 인구 감소 영향에 의한 학생수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의 발생과 통폐합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지역사회는 문화·복지시설의 부족으로 탈 이주 현상이 가속화되는 특성이 있는 곳이다.

둘째, 농·산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도시 이주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과소규모학교로 이어져 통폐합에 의한 폐교 발생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폐교의 위치적 특성을 보면 면소재지 중심에 위치한 과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 외곽의 독립 지역으로 구분되어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농·산촌 지역사회 중심지역의 특징으로는 주민의 도보 접근성이 높으며 지역 내 문화·복지시설의 부족이 높은 경향을 갖고 있다. 농·산촌 지역사회 외곽 독립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 상 활용 가능한 주민의 수가 적으며 도보 접근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 등의 활용 측면이 어려우며 지역 특산물의 가공 등 극히 일부분에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교육적인 활용 가치가 매우 낮은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위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이 가능한 폐교 활용방안의 도출이 필요 할 것이다

II-5. 이론 분석을 통한 시사점

1) 농·산촌 폐교 활용의 문제점

지금까지 제시한 폐교 및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회적, 교육적 활용 필요성에 의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폐교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써 공익적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폐교가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던 공공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폐교의 활용계획을 보면 보편적이고 단순한 야영장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창작교실, 자체 휴양시설 등 시설의 요구도가 전체 폐교 발생에 비해 시·도교육청별 1~2개 정도로 단순 목적 시설로의 전환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폐교는 복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시설, 즉, 학교 고유의 활용 목적 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시설(노인, 아동 체험시설) 등으로의 복합 활용방안 등에 의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 폐교의 활용은 매각이나 임대, 자체 활용과 같이 단순 이분법적인 논리에 얽매어 있다. 그러나 폐교 활용은 폐교 발생이 되기 전 통폐합 과정에서부터 고려되어 도심과의 위치나 거리,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인 장단점이나 미래 지역의 발전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측은 통폐합 정책 자체의 방향에서 긍정적인 요소와 폐교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요소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교의 지역사회 활용방안

폐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는 지역주민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생활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결합체로써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보전의 용도로 정리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복지공간으로 활용

14) 스마트워크 근무율은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직장이 아닌, 다른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근무자의 비율을 뜻한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의 경우 아동 복지 관련 시설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학교 시설 중 유희시설의 활용방안으로 아동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바람직한 청소년의 공유공간으로 활용

지역사회 청소년이 집이나 학교 인근에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노인의 공유공간으로 활용

노인정들이 전국 각 동네마다 설치되어 지역노인들의 공유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의 경우 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여가문화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공유공간으로써의 활용

여가활동은 지역사회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지역 안에서 최소한의 시민적 공공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

3) 지역사회 입지 특성별 활용방안 제시 필요

폐교 활용방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폐교 발생 지역의 지역적 특성, 거주 주민의 규모 및 접근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폐교 활용방안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과소규모학교의 입지 특성에 따른 대안을 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통폐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희교실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 및 아동관련 시설과의 융합에 의한 활용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입지의 특성으로는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과 독립지역 및 도시 인접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III. 통폐합 학교의 폐교 활용 실태 분석

농·산촌 지역의 폐교 활용 특성과 통폐합 과정에서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I-1. 폐교 활용 현황 조사결과

폐교 활용 사례 분석을 위해 지역적 특성이 다른 대구시 외곽지역과 경북 지역 폐교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1) 도시지역 폐교 활용 특성 분석

도시지역 폐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폐교 활용 중인 2개 지역(표 2. 참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은 대구시에 인접한 외곽의 농촌 특성이 있는 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대구시 관내 음악, 미술을 전공하는 영재들에게 특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관으로, 대구 예술 분야 영재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실제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관으로 2005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방과후에 운영되는 수업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 거주 학생들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 옥계초분교는 소규모 마을의 형태에서 도시 확대에 따른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다시 정규 학교의 규모로 활용되는 사례로서 개발예정지역 또는 발전 가능한 도시인근의 경우 학교 설립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먼 소재지 중심지역 및 외곽지역

농·산촌지역 폐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폐교 활용 중인 3개 지역(표 3. 참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 점곡중학교 분교 폐교지 활용 현황을 보면 의성군 사촌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농림부가 학교 부지를 6억에 매입하여 ‘신문화 조성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점곡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특성과 ‘마을살리기’ 일환으로 마을공동체의 관리와 참여 속에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교촌지역의 교촌 농촌 체험학교의 경우는 폐교 발생에 따라 농림부 지정 농촌 체험 기관으로 전환되어 현재 약 7년째 운영 중이며 이용 대상은 농촌 체험 중심의 단체 숙박 체험으로 매년 6,000명~7,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의해 건물 리모델링비 지원과 관리인 급여 일부 지원받는 농촌 살리기 일환 사업으로 운

표2. 도시근교 폐교 활용 실태 분석

지역특성 구분	폐교명 및 폐교일	현황 사진	활용 기관명	운영 특성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접근성
도시 근교 외곽지역 (대구시 북구 도남길)	도남초등학교 2004.10.1 폐교		대구예술영재교 육원 -대지5,444㎡, -연건평:900㎡ -학생: 179명	대구시전체 대상 음악, 미술 영재 학생 전용 교육장	· 저밀도 주택지역 외 곽위치 도보권 대상 주 민의 수가 적으며, 향후 도시 확대 가능지역의 로 학교 신설 가능 · 도시 중심권에서 접근이 매우 열악	· 대구시 전체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이 용자 접근성 매우 열악 · 접근성이 높은 지 역사회 주민의 활용 없음
도시근교 개발지역 (경북 구미시 옥계동)	옥계초 금포분교장 2000.3 폐교		옥계초등학교	1949.8.금포초 로 개교 1994년9월 분교장으로 격하	· 구미시 신도시 개 발에 의한 주거 소요 발생 · 새로운 주거단지 조 성에 의해 초등학교 적 정입지	· 도시 인근의 개발 예정 지역의 특성으 로 적정 활용
도시 근교 농촌지역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대창분교 1997.03.01 폐교		민간 전통예술원으로 임대(개인 운영)	민속음악 전수장	· 도시 외곽 독립지역으 로 주민 접근성이 낮음 · 개인 운영으로 활 성화는 미약한 편임	· 대구시 외곽 지역사 회의 주변에 독립적으 로 위치하여 지역사회와 관련성이 적은 편임

영되고 있다. 당초 학생 대상 농촌 체험이 주 운영이었으나 운영비 등 이용자의 감소에 의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받아 실시하는 대안학교 운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체험 학교의 위치는 농촌지역 면과 면 사이의 독립적 위치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의성남부초 비봉분교의 경우 작은 농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수의 주민으로 지역 활용성은 떨어져 건설자재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폐교의 상황은 폐허의 느낌으로 지역사회 중심 공간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마을 내 문화·보건 및 복지 시설은 전무 한 상태로 농·산촌 복지를 위한 활용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 위치한 폐교의 경우 대구시 거주 예능 특기 학생의 방과 후 활용에 의해 과다한 교통 시간 소요로 접근성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사회 내 부족한 복지 시설로의 활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산촌 지역의 폐교 활용 실태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학교와 마을 외곽에 위치한 경우 모두 지역사회 주민의 활용은 제외되고 있으며 접근성이 극히 미약한 외부 활용을 전제로 개발 운영되고 있어 근본적인 인구 유입이 없는 한 기존의 활용방안은 폐교 활용 용도의 재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 주민의 경우 마을에 위치한 학교가 폐교가 될 경우 구심점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과 통폐합 후 지역사회와 관계가 없는 폐교 활용정책은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3) 폐교 활용 실태 분석 결과 시사점

앞서 분석된 폐교 활용 실태 결과 도시지역의 외곽

표3. 농·산촌 폐교 활용 실태

지역특성 구분	폐교명 및 폐교일	사 진	활용 기관명	운영 특성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접근성
농·산촌 마을중심지역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76-1)	의성남부초 비봉분교 1995.03.01. 폐교		건설 회사 자재 보관소로 운영	· 건설회사 자재 보관소로 운영 중이나 관리 사 각지대로 폐허	· 약 60호 정도의 마을 중심부 위치 · 문화·보건 및 복지 시설 전무	· 전형적인 산촌 지역의 작은 마 을 속에 위치하 여 지역과 관련 성이 없는 임대 활용
2개의 지역사회 중간 독립 지역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350)	안계초 교촌 분교 2002.3 폐교		교촌농촌 체험학교	· 도시민의 농촌 전원마을 체험공 간으로 활용 · 매년 6,000 ~ 7,000명 이용 하며, 1 박 2일 또는 2박3일 로 1회 80~120명 이용	· 50호정도의 마 을에 인접해 있으 며 반경 1km 내 2 개의 동 규모 마을 존재, 마을 내 문 화, 복지, 보건 등 주민 편의시설 전 무함	· 운영비의 적자 등으로 대안학교 전환 등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중임
면 소재지 마을 중심지역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72)	의성중 전곡 분교장 2002.3.1. 폐교		사촌신문화 조성 사업장	농림부가 학교부 지를 6억에 매입 하여 '신문화 조 성사업' 으로 활 용하고 있으나 활 용은 미약함	· 점 곡 면 사 무 소 소재지 중심에 위 치하고 있으며 인 근 농산물 가공 공 장 및 주민 접근성 이 우수한 중심 공 간임	· 기 학교 건물 일부만 활용 되 며 운동장 등 토 지 활용은 없음

III-2. 통폐합 과정 분석을 통한 폐교 대상 학교 유휴시설의 지역사회 활용방안

지금까지 농산어촌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해 발생된 폐교의 활용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통폐합 과정에서 유휴시설의 교육적 활용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시설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도시 인근 면 지역사회 내 위치한 2개의 과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과정과 함께 각각의 지역사회내 주민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문화, 복지 시설의 실태조사를 거쳐 통폐합시 발생된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1) 대구 달성군 지역 소규모학교(하빈초, 동곡초) 통폐합 조건 분석

· 하빈초등학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85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로서 1997년 3월 1일 대평초등학교와 통합하였다. 학생수는 1-6년까지 34명 및 22개의 교실을 갖고 있다.

· 대구 동곡초등학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2리 142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 2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로 1940년 8월 20일 동곡국민학교 간이학교로 인가되었으며, 1943년 4월 26일 동곡초등학교로 개교하였다. 학생수는 52명이며 19개의 교실을 갖고 있다.

2) 통폐합을 위한 조건 분석

하빈초의 경우 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성군내에서 대구시 위성 신도시인 다사지구와 인접되어 향후 도시외곽 주거단지 확대 가능성도 있다.

두 학교의 대표성을 비교해 보면, 하빈초는 면사무소 및 우체국 소재지로 면 단위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동곡초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과 인접하여 하빈초보다 학생 수가 약 20여명 더 많은 규모의 학교이다. 따라서 두 학교의 대표성에서는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두 학교 모두 주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배후 도시에 인접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통폐합 보다는 두 학교 모두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정책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현재의 학생 수용측면에서 운영은 비효율적이므로 운영 효율성과 학교 유지 모두를 수용하는 다음과 같은 통폐합 정책이 필요하다.

• 1개 학교로 통폐합 하되 폐교 대상 학교는 저학년을 유지 활용 하는 방안

이는 각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폐합 효과를 얻고자 하는 방안으로 동곡초에 고학년을 배치하고 하빈초에 저학년을 배치하여 효율화를 기하는 방안이다.

동곡초의 경우 하빈초 고학년 23명이 추가 되어 운영되며 하빈초의 경우 동곡초 저학년 11명이 추가되어 학교운영이 실시 될 수 있다. 학급 수의 증가는 없어 교직원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는 교직원수 및 관리 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한 학교로의 통폐합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각 학교의 학년 이전에 따른 유희교실로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인건비 15명의 인건비 절감과 학년 이동에 따른 교실 발생에 따라 유희교실을 확보 할 수 있어 교육과정 개선에 효과적이다.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폐합 대상 학교의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복합 활용방안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보완 운영하는 방안

두 학교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1개 학교로의 통폐합보다는 하나의 교명을 쓰면서 저학년과 고학년 중심의 캠퍼스로 구성하는 안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저학년 중심과 고학년 중심의 캠퍼스로 재편 후 발생하는 각 학교의 유희교실은 지역사회 내 2개의 지역에 양분된 공공서비스와 문화·복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시설 복합화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하빈초 및 동곡초 지역 현황 조사 결과
하빈초 및 동곡초가 위치한 지역사회 공공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하빈초 및 동곡초 지역현황

구분	하빈초 (하빈면 현내리)	동곡초 (하빈면 동곡리)
지역 현 황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없음 • 공공도서관 및 독서실 없음 - 인근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 도서관은 하빈초에서는 자동차 기준으로 5.5km의 15분 거리, 동곡초에서는 6.7km의 18분 거리에 있어 일상적 활용은 용이하지 않음 • 공연 및 지역 문화 복지 시설 없음 • 체육시설은 간이운동장 1곳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3.5.26 개교 • 현내리 소재 - 하빈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 소방서 출장소 - 하빈 우체국 • 금융시설 - 하빈 농협 - 새마을 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3. 4. 26 개교 • 동곡리 소재 - 다사지구대 하빈치안센터 - 하빈면민 복지 회관 • 금융시설 - 하빈 농협 동곡지점

4) 통폐합 대상 학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
기 분석된 자료를 중심으로 본 하빈초 및 동곡초의 유희교실내 설치 가능한 지역사회 시설로 다음 표5와 같은 개념과 종류의 시설을 도출 할 수 있다.

표5. 하빈초 및 동곡초 유희시설 활용방안

구분	하빈초 (하빈면 현내리)	동곡초 (하빈면 동곡리)
복 합 화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빈초는 1~3학년(저학년), 동곡초는 4~6학년(고학년)의 한 학교로 통합할 경우에 각 학교는 최소 3개의 유희교실이 발생 - 유희교실은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과 복합 추진 • 특별실은 각 학교에서 나누어 운영 - 보건실은 동곡초에 두고, 하빈초는 500여m 거리에 있는 보건 지소와 연계 - 급식실은 하빈초에 두고, 동곡초로 급식 이동 	

15) 달성군청 홈페이지 및 하빈면사무소 홈페이지 자료 인용, 통계자료는 2009년 달성군 통계정보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 중심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빈초에서 현재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이를 적극 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빈초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인근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편임 - 달성군청¹⁶⁾에서 적극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교육¹⁷⁾ 및 교양강좌 등의 평생교육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도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곡초 도서관은 별도 건물로 보안 용이, 문화 공간으로 확대 운영 가능 ● Smart Community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를 활용한 우편, 금융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Smart Center 기능 - 화상 진료 및 구강 건강 서비스¹⁸⁾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¹⁹⁾ <p>※ 주요 이용 인구가 노인층임</p>
---	---

IV. 지역 특성에 따른 폐교 활용방안

II장의 선행연구 고찰과 III장의 폐교 활용 실태 분석 및 지역사회 활용방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폐교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도시 폐교 활용방안

주로 대도시 인근의 개발지역에서 도시 학생의 이용을 추구하는 분야 또는 학급 중대가 예상되는 도시 변두리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교육청 자체의 새로운 기관 설립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차원에서 도시 근접 폐교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16) 달성군청에서는 2009년에만 630,000천원을 지원하여 원어민 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함

17) 영어교육은 학부모들의 주요한 고민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18) 제주특별자치도 초등자율학교 중 한 곳은 인근 보건소와 연계하여 유희교실에 치과 진료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킴, 치과 진료는 1회성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내 학생과 주민이 이용 가능한 구강 건강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 하빈면은 의료서비스 가능지역이 현내리 보건지소 하나뿐이므로 농촌지역의 주를 이루는 노인인구를 위한 지역 건강 센터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는 도시의 확대에 의해 주거지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고찰과 지역 폐교 활용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외곽의 폐교 활용은 도시 거주시설 확대에 의한 새로운 학교 설립을 대비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시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복지 시설의 활용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이슈의 발생에 따른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자활센터, 노인 요양 및 주간 케어센터, 임대주택 등은 도시 내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필요한 분야로의 폐교 활용방안으로 고려 할 수 있다.

2) 농·산촌 폐교 활용방안

농·산촌에 위치한 폐교 중 지역사회 중심지역의 경우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특성을 고려 마을 내 문화·보건 및 복지를 위한 활용방안과 지역특산물인 농산물 유통을 위한 테마형 사업장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사회 마을 중심권을 벗어나 인근 주민의 접근성이 적은 지역의 경우 교육적 활용이나 마을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주요한 관건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활용보다는 도·농 연계에 의한 교육과정 및 테마형 체험학습장 등의 활용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3)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폐교 활용방안

농·산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문화·복지 개념을 복합화 한 폐교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거점학교 중심 완전 통폐합의 경우보다 1교 2캠퍼스 형식의 통폐합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폐합에 따른 폐교화가 되지 않아 지역사회 구심점 상실로 인식되는 통폐합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 될 수 있다.

• 고학년 중심 본교와 저학년 존치 2캠퍼스 개념에 따라 각 학교에는 유희시설이 발생되며 이를 지역사회의 부족한 문화·복지 및 보건 시설로 활용 될

수 있어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

사례 분석된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문화·복지 시설로 학생 및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 주민의 복지시설로서 순회 보건 진료소 및 지역노인의 머물 곳, 아동 탁아시설, 지역사회 스마트워크 공간 등이 학교 시설과 함께 배치되어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통폐합 과정은 1교 2캠퍼스(저학년 또는 저·고학년 분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 폐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학급 통합으로 발생한 유휴교실을 학교시설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VI. 결론

지금까지 제시한 폐교 및 여유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회적, 교육적 활용 필요성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실태 분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지역 폐교활용방안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경우 도시 확대에 대비한 새로운 학교 설립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 상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폐교시설은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복지 시설과 도시 내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요구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자활센터, 노인 요양 및 주간케어센터, 임대 주택 등의 활용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산촌에 위치한 폐교 중 지역사회 중심 지역의 경우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 마을 내 문화·보건 및 복지를 위한 활용방안과 지역특산물인 농산물 유통을 위한 테마형 사업장 등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산촌 지역사회 외곽에 위치한 폐교의 경우 주민 접근성의 부족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활용보다는 도·농 연계에 의한 교육과정 및 테마형 체험학습장 등의 활용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도출된 폐교 활용방안으로 지역사회 문화·복지 개념을 복합화 한 1교 2캠퍼스 개념의 행정적 통폐합 방안에 의해 발생한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부족한 문화·

복지 및 보건 시설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례 분석된 지역의 경우 부족한 문화 복지 시설로 지역도서관, 순회 보건 진료소 및 지역노인의 머물 곳, 아동 탁아시설, 지역사회 스마트워크 공간 등이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교실 활용방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해 발생한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변지역에서 부족한(또는 필요로 하는) 지역 공공시설(복지, 문화, 교육, 기타)과 지리(위치)적 및 환경적 조건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교육기술과학부,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 2009, pp.1~4, p.9
2. 국민권익위원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고충해결 및 폐교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0, p.2
3. 김승근 외, 일본의 초등학교 여유교실의 전용과 한국의 여유교실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7권, 2호, 2006, p.25
4.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08호, 2010, p.1
5. 정진주, 일본 도쿄 타카오야마학원 사례를 통한 유휴교실의 도심 대안학교로의 활용 가능성, 한국교육시설학회, 15권, 2호, 2008, p.77
6. 채충기, 이재림, 폐교 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학회. 6권, 2호, 2008, p.52
7. 전성균, 살아있는 배움터, 농촌교육장, 인터넷 자료
<http://www2.korea.kr> (검색일: 2007. 05. 07)
8.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지원해야>, 인터넷자료
<http://www.sjbnews.com> (검색일: 2010. 05. 28)

(논문투고일 : 2012.10.25, 심사완료일 : 2012.12.03, 게재확정일 : 2012.12.14)